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87

사람을 낚는 어부와 생명의 물

(마태복음 4:1~11, 마가복음 1:12~13,
요한복음 1:35~51)

“영차! 안드레, 허탕도 이런 허탕이 없구나!”

“예 형님! 오늘은 허탕친 거 같아요...”

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
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
그날따라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고
어부들은 힘없이 정리를 하고 있었죠.

그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찾아오셔서
베드로 형제의 배에 오르셨어요!

“아니, 예수님!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”

“베드로야,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.”

**“헤헤, 선생님! 저희가 밤새 그물질을 해봤는데요,
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
에이,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
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죠, 뭐.”**

**베드로는 호수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
힘껏 그물을 던졌어요.
그리고 얼마 후,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.....!**

**“세상에! 형님! 그물이 안 올라와요!
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! 이러다 찢어지겠어요!!”**

**“맙소사... 안 되겠다, 다른 배더러
도와 달라고 해야겠어..!”**

형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함께
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 올렸어요.
어찌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물고기 무게 때문에
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죠.
모든 어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.

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.
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진정한
구세주이시라는 걸 말이죠.
그런 분 앞에서 베드로는 순간 두렵고 부끄러워졌어요.

“주님,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.
저는... 죄인입니다....”

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!

“무서워하지 말거라
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.”

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감격을 받았어요.
평생 물고기를 잡던 내가
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가 된다니!
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라면
기꺼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.

“형님,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
저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.”

“나도 그렇다, 안드레. 우리 지금 당장
예수님을 따라가자꾸나.”

그리고 예수님께서, 그곳에서 있던
또 다른 형제를 부르셨어요.
바로 ‘세베대’라는 어부의 아들인
‘야고보’와 ‘요한’ 형제였죠.
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지켜본 두 사람도
곧장 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!
예수님께서 주신 ‘생명의 물’이
또 한 번 누군가를 변화시킨 순간이었죠.

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던 중
사마리아 땅의 ‘수가’라는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.

**“찹찹하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구만.
이 지역 사람들은 영 만나고 싶지가 않단 말이지.”**

제자들의 기분이 썩 좋아보이지 않았어요.
• 그도 그럴 것이,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
서로 원수와도 같았거든요.

**“맞아. 이방민족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녀석들은
피하는게 상책이라구.
그나저나 예수님, 먼 길 걸으시느라 피곤하시죠?”**

**“저기 우물가에서 잠깐 쉬고 계시면
저희가 먹을 것을 사오겠습니다.”**

그렇게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께서
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
한 사마리아 여인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
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.
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.

“나에게 마실 물 좀 주시오.”

여인은 깜짝 놀랐어요.
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으니깐요!

**“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
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?”
“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더라면
오히려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
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.”**

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
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
이 유대사람에게,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.

**“선생님, 당신에게는 물 길을 도구도 없는 것 같은데
이 깊은 우물에서 무슨 수로 생명의 물을 구하십니까?”**

**“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금방
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
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ियो.”**

**“선생님, 그렇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.
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생명의 물을 주세요!”**

**그러자 예수님께서
여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.**

“가서 당신을 남편을 데려오시오.”

여인은 순간 몹시 당황했어요!
사실 그 여인은 그동안 여러 명의 남편들에게
버림을 받아 아주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.
여인은 그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.

“저..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..”

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짝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그렇소, 당신은 방금 사실을 말했소.
당신은 전에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
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말ियो.”**

**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?
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!**

**“선생님,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시군요!
제가 듣기로는,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구세주께서
이 땅에 오신다고 하던데
그게 언제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”**

**“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
내가 바로 구세주라오.”**

**그 순간 여인은,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.
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던
마음속의 목마름이 비로소 해소되는 느낌이었죠.
우물물을 마시지 않고도 말이에요!**

**여인은 물항아리도 버려두고 황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.
그리고 구세주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
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.**

**사람들은 금세 예수님께로 몰려와 예수님의
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여인의 말이
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**

**유대인, 사마리아인 가리지 않고
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서는
이틀 동안 마을에 머무시면서
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답니다!**